

■ 화제의 뉴스 ■

쌍용건설, 2014년 1월 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

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(이종석 수석부장판사)는 2014년 1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.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회사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. 회생채권, 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, 조사기간은 2월 8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.

쌍용건설의 국내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13년 기준 16위이며, 하도급 협력업체는 1,400~1,5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. 건설공제조합은 쌍용건설에 선급금보증, 공사이행보증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으로 1조 4,000억 원대의 보증을 지원하였고, 과거 사례에 비추어 약 500~600억 원 상당의 보증대지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연합뉴스 - 법원,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\(종합\)\(2013. 1. 9.\)](#)
- [매일경제 - 법원,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\(종합\)\(2013. 1. 9.\)](#)